

감염리스크가 높아지는 「5가지 장면」

장면① 음주를 동반하는 친목회 등

- 음주의 영향으로 기분이 고조됨과 동시에 주의력이 저해된다. 또한 청각이 둔감해져 목소리가 커지기 쉽다.
- 특히 문턱 등으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, 다수의 인원이 체재하면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- 또한 술잔 돌리기나 젓가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


장면② 다수의 인원이나 장시간에 이르는 식음

- 장시간에 이르는 식음, 접대를 동반하는 식음, 심야의 2차, 3차 술자리는 단시간의 식사와 비교하여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- 다수 인원, 예를 들어 5명 이상의 식음의 경우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비말이 튀기 쉬워져서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


장면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
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면 비말감염이나, 마이크로 비말로 인한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- 마스크 미착용 감염사례로는 주간가라오케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.
- 차나 버스로 이동시 차량내에서도 주의가 필요



장면④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

-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작업은 장시간에 걸쳐 폐쇄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감염리스크가 높아진다.
- 기숙사 방이나 화장실 등 공유부분에서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.



장면⑤ 거처의 변경

- 업무중 휴게시간이 되었을 때 등 거처가 변경되면 긴장의 완화나 환경 변화로 인하여 감염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.
- 휴게실, 흡연실, 탈의실에서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.



【현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 대한 부탁말씀】

「겨울철을 맞이함에 있어서」 감염방지 대책

○ 기온과 습도가 떨어질 때의 영향

-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이 멀리까지 튀기 쉽고, 오래 부유한다.
- 체외에 배출된 바이러스가 장시간 생존한다고 한다.
-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가 「밀폐」상태가 되기 쉽다.
- 목 점막의 방어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염되기 쉽다.

→ 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여 겨울철 유행을 억제합니다.

1.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의 철저

- ① 꼼꼼하게 손씻기나 기침예티켓을 철저히 지키기
-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(증상이 없더라도 착용을)
- ③ 신체적 거리 두기 등 「3 밀(密)」의 회피
- ④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
 - 회식시에는 배석을 궁리하는 등 감염리스크를 낮추면서 식음을 즐깁시다.

2. 환기의 실시

- ① 환기 팬의 사용 등 「기계환기」에 의한 상시 환기의 실시
- ② 「자연환기」의 경우에는 창문 등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시다.
 - 실온의 기준은 18℃ 이상

3. 적당한 보습

- ① 가습기 사용이나 세탁물의 실내 건조 등으로 습도 조절
 - 습도의 기준은 40%이상